

한라산 정상등반 관리 '연착륙' 할까

다음달부터 성판악·관음사코스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2월 주말·휴일 예약 빼곡... 성판악은 평일도 700명선

한라산의 적정 탐방을 보장하고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2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본격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 대한 탐방예약제를 시범 운영키로 하고, 현재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탐방예약 상황을 보면 이날 현재 2월 한달 성판악코스는 1만3000여명

이, 관음사 코스는 3500여명이 예약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오후 5시 현재 성판악인 경우 2월 22일까지 주말과 휴일은 예약정원 1000명이 모두 채워졌다. 관음사도 주말과 휴일인 2월 1, 2일과 2월 8일 까지 탐방인원 500명 예약이 완료됐다. 2월 9일 역시 마감이 임박했다. 탐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성판악 코스는 평일에도 700명선까지 예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은 매일 1일에 다음달 이용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말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한라산 등반로는 어리목(6.8km), 영실(5.8km), 성판악(9.6km), 관음사(8.7km), 돈내코(7.0km) 등 5개 코스다. 한라산 백담담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2개다. 나머지는 모두 남북 분기점까지만 등산이 가능하다.

등반이 허용되는 1일 탐방 인원은 성판악 1000명과 관음사 500명이다. 단체는 1인이 10명까지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은 당일 입산 가능 시간 전까지 한라산탐방로 예약시스템과 전화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잔여 예약인원만 현장 발권이 진행된다.

어리목과 영실, 돈내코 코스는 현재처럼 예약없이 등반할 수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면서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도로 정체로 심화하고 있는 주차난 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라산 탐방객은 5개 코스에서 2000년 이후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15년 125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106만명, 2017년 100만명, 2018년 89만명, 2019년 84만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적정 수용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탐방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선영기자 sycho@ihalla.com



수채화 같은 한라산과 유채꽃. 대한 추위를 잊게하는 포근한 날씨를 보인 21일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에서 바라본 한라산과 유채꽃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51억 투입 9개 사업 추진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3대 악성가축전염병(AI·구제역·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 청정제주 유지 ▷제주 축산물 안전·안심 시스템 강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제주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3대 핵심 정책·9개 사업에 총 51억원을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22억원을 투입, 삼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도내 반입·반출되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위해 제주항 내 설치된 동물검역센터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축종별 발생·소모성 질병 근절을 위해 2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해 병성감정 최신 진단기술을 확보하고, 가축질병 예방지도 및 백신접종 모니터링에 나선다. 송은범기자

7월 성산~전남 녹동 잇는 여객선 취항

정원 630명 '선라이즈 제주' 하루 1회 왕복운항

서귀포시 성산과 전남 고흥군 녹동을 잇는 여객선이 오는 7월부터 매일 운항할 예정이어서 동부지역 관광과 물류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성산~녹동 항로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취항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취항에 맞춰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도 이달중 발주할 예정이다.

성산~녹동 항로 여객선은 2018년 7월 항로 개설이 승인된 후 공모를 통해 (주)에이치해운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에이치해운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성산~녹동 항로 여객선 면허를 취득해 취항을 준비해 왔다.

여객선 선라이즈 제주는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 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설계된 카페리

로 선체 길이 143m, 선체 폭 22m, 1만3600t 규모다. 여객정원 630명에 차량적재는 170대까지 가능하다. 2018년 12월 선박 기본 및 상세설계를 완료해 현재 선박을 건조중으로 2월중 건조가 마무리되면 진수식을 갖고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성산~녹동 항로를 1일 1회 왕복운항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도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여객선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추진상황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취항 일정에 맞춘 계획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제주시교육지원청, 2020 업무핵심과제 발표 “기초학력 키우고 생명존중 강화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도 집중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올 한해도 기초학력을 높이고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교육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3월 새 학기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주요업무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는 학교교육 6대 과제에는 기초학력 향상, 비만 예방, 학교 중도탈락 예방, 생명존중 및 학교폭력 예방, 사교육 경감, 학교 시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6대 과제 추진에 힘을 더하기 위해 '교육장-교단장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역 내 초·중학교 교장단과 상시 대화체계를 마련해 교육과제에 대한 학

교장의 책무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입시 변화에 따른 중학생 진로 교육 강화 방안 마련 등에도 머리를 맞댄다.

교육과정을 통한 제주 이해교육도 활성화한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자연 보존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도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시 탐방지원단 운영을 통해 재능 나눔과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간다.

학교별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새 학기 첫발을 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도 힘을 모은다. 그동안 지원청 건물 내 여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심의위 공간 확보 문제가 최근 해결되면서 막바지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장은 "심의위 운영을 위한 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을 임대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라며 말했다. 김지은기자

제주공항 설 연휴 임시항공편 112편 운항

23-27일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설 연휴 기간(23-27일) 원활한 항공수송 수요를 위해 '특별교통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예상 승객은 약 44만6900명(하루 평균 8만9380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할 전망이다. 운항은 총 2580편(하루 평균 516편)으로 지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시편은 김포 68편, 김해 14편, 대구 13편, 청주 9편, 양양 6편 등 총 112편이다.

제주본부는 공항 시설과 장비 및 여객 편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차 안내 요원 등도 추가 배치했다. 또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재난 대비태세·간부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공항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경성기자

제주 오늘부터 비... 최대 120mm

22일 제주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서쪽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 오전 3시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3일 낮 12시까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제주 전역에 20~60mm가 내리고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7~9℃, 낮 최고기온은 13~14℃로 평년보다 4~5℃ 높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특히 22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전 3시 사이에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상청은 22일 오후 3시부터 이날날 오전 9시 사이에 지속 30~50k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축
당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주북초등학교 54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북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강태식 외 동문일동

축
당선 취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당선 및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오회 일동

축
당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22대~23대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고영수 외 회원일동

축
당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대학교병원발전위원회 임원 일동
제주대학교병원장 송병철 외 교직원 일동